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조선조 여성의 현실대응양상 고찰*

-부부관계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손앵화**

< 차례 >

1. 서론
2. 조선조 여성의 현실적 조건과 대응 양상
 - 2.1 남편과의 관계
 - 2.2 처첩 간의 갈등
 - 2.3 가사노동과 치산
3.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조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두 문학 갈래인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현실대응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조 여성들의 보편적 의식과 계층적 특수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규방가사와 부요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하에서 억압당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문학적 형상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분계층에 기인한 현실적 격차는 성적 동질감 이상으로 그들이 각각 향유한 문학 양식에 드러나 있다.

여성의 혼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이른바 ‘시집살이’의 시작인 것이다. 혼인을 통해 조선조 여성이 맞닥뜨린 현실적 조건과 이에 대응한 양상은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여성은 새롭게 맺는 모든 시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혼인을 통해 배우자인 남편에서 파생한 것이다. 규방가사의 향유층인 사대부 여성에게 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8026)

** 전북대학교

인은 남편과의 애정 관계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대 가문으로 성사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집살이나 시족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남편만을 서술의 구체적인 모티프로 다루는 경우는 드문 데 비해 부요의 경우 남편은 아내인 평민 여성의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 평민 여성은 시집살이의 보상으로 남편의 애정을 갈구하는 차이를 보인다.

규방가사와 부요 간에 처첩 간의 문제를 형상화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처첩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정처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까닭에 규방가사에서 처첩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남편이 첩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허비하고 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할 따름이다. 반면 평민 여성에게 첩의 등장은 남편의 배신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부요에서 첩 문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교 질서가 내면화된 사대부 여성일수록 빈곤으로 인해 구고봉양, 봉제사, 접빈객 등 여자소임을 다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다룬다. 이는 규범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규방가사가 근면과 절약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치산’하는 과정을 강조한 데 비해 부요는 직접적인 생활고,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나 의지의 천명 보이지 않고 가난 자체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규방가사와 부요에는 조선조 여성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낸 다양한 방식들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형상화의 밑바탕에는 현실과 균형을 이루려는 여성의식이 자리해 있다. 따라서 규방가사와 부요는 여성 삶의 다양한 실상이 진솔하게 표출된 생활문학이요, 여성이 살아낸 삶의 체험을 오롯이 담고 있는 체험문학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규방가사, 부요, 현실인식, 시집살이, 규범적 자아, 가사노동, 처첩 관계

1. 서론

규방가사와 부요는 조선 후기 여성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이다. 양반사대부 남성 중심의 시가 양식인 시조나 가사가 성리학적 사유에 점철되어 관념적·사변적인 경향을 치우친 비해 규방가사와 부요 같은 여성문학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보다 진솔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규방가사와 부요는 고도의 상징성이나 본격적인 전환표현이 거의 없는 ‘생활문학’이라는 점에서 조선조 가족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삶의 실상에 대한 온전한 배려가 없이는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렵다.¹⁾

규방가사와 부요는 가부장적 봉건질서 하에서 억압당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문학적 형상물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닌다. 두 문학 장르의 각 향유층인 사대부 부녀자와 평민여성은 교육에서의 소외, 혼인에 의한 가족·친지·붕우와의 이별, 시집살이의 애환 등 현실적 상황에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규방가사와 부요에 형상화된 조선조 여성들의 회로애락은 근본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난 탓’, 즉 유교 이념체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젠더적 역할에서 말미암는다.

한편으로 조선 사회는 태생적으로 귀속된 신분 질서를 남녀 간의 성적 차별 이상으로 중시했던 봉건계급사회였다. 사대부와 평민이라는 계층차가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계층 간 현실의 격차는 그들이 향유한 문학 양식에 노정되어 있다. 부요는 구비전승을 특징으로 하는 데다 일상의 노동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향유되기 때문에 개인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기록문학인 규방가사 역시 애초에 작자가 존재하지만 문중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원작자는 잊히기 마련이다. 부요는 차치하고서라도 작자나 정확한 창작 연대가 밝혀진 규

1)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314쪽.

방가사가 극소수라는 점은 여기에 기인한다.²⁾ 따라서 규방가사와 부요는 개별 작품론이나 개별 작가론적 연구보다 유형별 접근 또는 장르 간 비교를 통해 향유층의 성격과 담론 구성, 내용상의 특징 등 실체적 분석에 다가가야 한다.

조선조 여성들은 출생에서부터 교육, 혼인, 경제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되면서 불평등한 구속과 억압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성문학은 여성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보다는 열패감과 무력감 등 감정적이고 편하적인 평가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여성의 표현과 창작 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남성의 문학작품과 단순 비교를 통해 여성문학의 수준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는 그 향유 주체인 조선조 여성들이 지닌 내재적 역량과 자의식의 면면을 간과하기 쉽다. 달리 자기표현의 수단과 소통의 통로가 없었던 조선조 여성들에게 규방가사와 부요는 그 존재만으로 일단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조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두 문학 갈래인 규방가사와 부요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현실대응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조 여성들의 보편적 의식과 계층적 특수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실의 제문제에 대응해가는 방식에서 상이한 두 계층 여성들의 현실 인식과 자아실현 과정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선조 여성들의 작가적인 면모를 높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놓인 상황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그러한 여력을

2) 지금까지 작자가 밝혀진 가사 작품은 다음과 같다. 안동권씨(1718~1789)의 <반조화전가>, 전의이씨(1723~1748)의 <절명사>, 연안이씨(1737~1815)의 <쌍벽가>·<부여노정곡>, 남원윤씨(1768~1801)의 <명도자탄사>, 순원왕후 김씨(1789~1857)의 <김대비훈민가>, 효현왕후 김씨(1828~1843)의 <태평사>, 은진송씨(1803~1860)의 <금행일기>·<축양가>, 광주이씨(19세기)의 <이부인기행가사>, 남양홍씨(1851~1923)의 <홍씨부인계녀가>, 진보이씨(1860~1935), <의병가> 7편 등이다. 이들 규방가사는 사대부 남성가사의 전통 아래 창작된 작품들로, 규방가사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적 감수성이나 정감과는 거리가 있다.

작품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규방가사와 부요에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한 심적 갈등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규방가사와 부요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지향적인 삶을 영위했던 조선조 여성들의 적극적인 현실인식을 살피고자 한다.³⁾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무엇보다 혼인을 계기로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논문의 실질적인 고찰 대상은 조선조 두 여성 계층의 시집살이의 양상이 될 것이다. 시집살이를 중심으로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현실대응양상을 고찰해 보는 일이 서로 다른 두 여성 계층이 ‘살아내고’ ‘추구한’ 삶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⁴⁾

2. 조선조 여성의 현실적 조건과 대응 양상

사대부와 평민이라는 계층 차이만큼이나 이들 여성이 당면하는 현실도 그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시집, 즉 혼인은 배우자인 남성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시부모, 시누이, 친지 등과 광범위한 관계를

3) 조선조 여성은 혼인을 통해 부모 슬하를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현실세계에 진입한다. 이들이 직면하고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십오륙 세 무렵 혼례를 치른 후 죽기 전까지 시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점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조 여성 삶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내고자 기혼 여성들이 서술자 혹은 화자인 텍스트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집살이요가 여성 현실과 삶의 대응양상을 부요의 여느 유형보다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집살이요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자 한다. 규방가사와 부요(여성 민요)를 비교 고찰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이정아, 『시집살이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해안, 2010.

4) 향유 계층의 신분적 차이 외에도 가사와 민요는 각각 그 문학 양식적 차이로 말미암아 현실인식의 형상화 및 주제 구현 방식이 달라진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학 양식적 조건을 감안하되 두 여성 향유층의 사회적 조건을 작품 분석의 우선 전제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형성하게 되는데, 이른바 ‘시집살이’의 시작이다. 남편을 구심점으로 복잡 다단하게 얽힌 인간관계는 여성의 고단한 시집살이를 예고한다. 규방가사와 부요에는 여성과 시집살이라는 공통점 외에 사대부 여성과 평민 여성의 교육·교양 수준의 차이, 남편에 대한 의존도, 시대 식구와의 갈등, 처첩 관계, 노동의 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선조 여성이 당면했던 현실적 조건은 범박하게는 혼인으로 시작되는 ‘시집살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집’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이성 지합(二姓之合)인 혼인은 시집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남편과 그 가족, 즉 시족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이 촉발된다. 이 때문에 전통사회 여성 현실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 시집살이, 그 중에서도 시족식구들과의 관계에 주목해 왔다. 그런데 시집살이의 권력구도에서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등과 같은 시집살이의 표면적 가해자와 피해자인 여성에 초점을 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크게 조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집살이 연구에 대한 선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조선조 여성에게 남편의 위상과 의미를 어떠한지에 주목한다. 또한, 두 문학 향유층 간의 사회계층적 차이를 가장 현격하게 드러내는 노동과 치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남편과의 관계

조선조 여성은 15~6세 무렵이면 혼인과 동시에 삶의 공간이 시가로 옮겨간다. 그와 동시에 여성들은 시가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친정과 다른 세계임을 깨닫는다. 다시 가기 어려운 친정은 과거의 공간으로, 그리움과 향수의 대상이다. 반면에 시가는 당면한 현재이자 살아내야 할 당위의 공간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⁵⁾ 살가운 친정 부모의 자

5) 여성은 혼인을 통해 친정과 시가를 긍정과 부정의 공간으로 나눈다. 친정은 긍정적인 곳이지만 과거일 따름이며, 시가는 부정적인 곳이나 여성의 현재이다. 전통시대

리를 간간한 시부모가 대신하고, 정 많은 자매는 심술곳은 시누이로 대체 된다. 이렇게 여성이 새롭게 맺는 모든 시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혼인에 의해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여성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남편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규방가사에서는 남편과의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혼인은 남편과의 애정 관계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대 가문으로 성사되는 일이다. 어릴 적부터 가문의식이 몸에 밴 사대부 여성이 시집살이나 시족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남편만을 서술의 구체적인 모티프로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다. 요컨대 남편은 사대부 남성이라는 보편적 관념에 포괄되어 거론되거나 모진 시집살이라는 전체합에서 극히 일부분으로 등장할 따름이다. 이 관념은 ‘남성’보다 전자의 ‘사대부’ 세 글자가 지닌 역할 의무에 강한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칠팔세 비운글을 십오세 통달하여
 낙수상 청운교에 단계화을 찍어주고
 문무관 초입스로 입십양명 호을적에
 교리슈찬 승지당상 참의참판 영돌영을
 계제보고 활유보아 환복되로 득후후에
 절나감스 충청감스 남북병스 통제스을
 외임으로 흠이스라 호스스치 극진히니
 남즈몸이 되었드면 긴들안이 죠홀손가⁶⁾

화려하게 묘사된 남성의 생애는 여자의 입장에서 표면상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다. 여성은 성현의 글을 읽고 시문을 익혀 과거에 급제하고, 입

여성에게 갈 수 없는 또는 가기 어려운 친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집결지와도 같은 공간이다. 친정은 여성을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시키며, 눈치 보기와 침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하며, 평가 대신 친교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한다.(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341~342면).

6) <여자탄식가>(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신양명하는 남자를 꿈꾼다. 교리, 수찬, 승지, 참의, 참판 등 조정의 요직을 역임하고 감사, 병사, 통제사 등 주요 외직까지 두루 거친 남성의 관직 생활은 일견 화려하고 호기롭다. 남성의 삶은 학문의 시작부터 입신양명, 부귀현달에 이르기까지 서사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묘사의 이면에는 곧 남성이라는 ‘존재’가 아닌 남성의 ‘능력’에 무게 추가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성 선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조건에 다름아니며, 남성들에게는 학문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가문의 영달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부여된다.

이는 사대부 여성이 시집살이를 당연한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실천해야 할 행실규범 및 덕목들을 나열·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자소임을 다함으로써 가문 내 여성의 지위는 공고해지고 여성이라는 성적 열위에서 벗어나 ‘집안어른’으로 대접받는다.

규방가사에 나타난 부부의 관계를 보면, 혼인한 배우자로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에게 애정을 전제로 한 독자적 개체성을 갖지 못하고 가문이라는 집단체의 역할 구성원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가문의 부흥이라는 부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바느질과 길쌈 등 육체적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스랑에 저양반은 세정물정 어이알리
 혼슈만 부족흐면 서리갓흔 저호령이
 된소리 큰걱정이 비정지척 무삼일고
 무용한 여자들은 쥬야장청 놀다흐고
 가는허리 부러지고 열손가락 드파여서
 청염흐고 조심흐여 굴느라고 흐건만은
 치흐는 고사흐고 익썬공덕 바이업드7)

화자는 여성의 법도를 준행하고 여성에게 부과된 갖은 여공(女工)에도

7) <여자탄식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조 사대부 여성의 범절인 사덕(四德)에 부족함이 없는 여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⁸⁾ 그런데 주야장천 날 새고 바느질 하고 길쌈하느라 가는 허리가 부러지고 열 손가락이 다 파일 정도로 ‘애 쓴 공덕’을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남편은 세상물정 모르고 아내에게 호령만 일삼는 인물로서, 여자의 시집살이를 힘들게 만드는 시족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 묘사된다. 여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는 애정과 신뢰로 맺어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관계이며, 삼종지도 예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영달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개인의 삶을 담보한 존재이다. 가문 내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남성 역시 여성들의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얼금벌금 키큰남자 키만잔득 커먹었지
 알분시런 성민노장 납작납작 말만헛디
 어리송송 문서씨난 거질불도 일술너라
 통스흔권 못이르고 스셔삼경 어이알며
 오원칠원 못짓거던 치부표척 어이헛며
 제이름도 모르거른 죠상세계 어이알며
 혼짐닷못 모르거른 문서지춤 어이헛리
 이괄청춘 절문새예 허도세월 무삼일고
 곰방씨을 엽히끼고 이집저집 당기면서
 셔당방에 낮잠즈고 차작맞기 일슈헛고
 놀기만 힘을씨고 남자형세 그르헛고
 여자형실 흥을보니 야속하고 가련히라⁹⁾

위에 형상화된 남성은 싱겁게 키만 크고, 말이 많고, 거짓말을 일삼고,

8) 『명심보감』에 “其婦德者 淸貞廉節 守分整齊 行止有恥 動靜有法 此爲婦德也 婦容者 洗浣塵垢 衣服鮮潔 沐浴及時 一身無穢 此爲婦容也 婦言者 擇師而說 不談非禮 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此爲婦言也 婦工者 專勤紡績 勿好暈酒 供具甘旨 以奉賓客 此爲婦工也”라 하여 부덕·부용·부언·부공이 부녀자의 아름다운 행실로 제시되어 있다.

9) <여자탄식가>

학문을 전폐하고, 조상을 향한 추원보본의 도리도 다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관념이 없이 허랑방탕한 생활하며 가정 경제까지 축내는 소비형 인물로, 자신의 처신범절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당한 ‘여자행실’을 비난하고 있다. 작품 속 표현을 빌리자면 ‘남자행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물로서, 조선후기 서사가사 <우부가>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 형상과 같다.¹⁰⁾ 남성의 탈규범적 행태는 개인의 망신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패가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문의식이 내재화된 규방가사의 향유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방가사가 가문 간의 결합을 중시함으로써 남편의 개별적 존재감이 약한 데 비해 부요에서는 남편은 여성의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 사대부 여성은 남편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통해 힘든 시집살이로 인한 자기희생을 보상받고자 하고, 평민 여성은 시집살이의 보상으로 남편의 애정을 갈구하는 차이를 보인다.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등 다른 시족 구성원이 모두 모진 시집살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점과 달리 남편은 시집살이를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러므로 다른 시족 구성원과 남편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며느리 가는길은 억만리 불고개
 앞밭에는 난초심고 뒷밭에는 당초심어
 당초꽃이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욱매워
 씨아버진 호랑새요 씨어머닌 꾸중샅세
 씨누이는 뱀죽새요 도련님은 나팔샅세
 자식하나 우는새요 남편하나 믿는샅세¹¹⁾

범이그리 세다하니 세아비두구 더세졌나
 고치장이 맵다하니 새어미두구 더맵더냐

10) <우부가>는 경세훈민의 목적으로 편찬된 『경세설(일명 초당문답가)』에 수록된 13편 가사 중 하나이다. 개똥이·뽕생원·평생원 세 우부의 패륜과 타락상을 열거하여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다.

11) <시집살이요>(완도지방)(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74). 이하 같은 책.

어송이꽃이 곱다하니 남편두구 더곱겠냐¹²⁾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고개를 넘는 것과 같다. 일상 속 매운 맛의 전형인 고추를 통해 시집살이가 일상적인 일이라는 사실과 고되다는 의미를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요의 대표적 갈래인 시집살이노래에서 시집살이의 매서움을 고초당초로 비유하거나 시부모·시누이·시동생·동서 같은 시족구성원의 특성을 ‘○○새’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부요의 관습화된 공식구이다. 그만큼 시족구성원은 며느리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가해자의 전형성을 띤다. 반면에 남편의 존재는 고초당초보다 맵고 독한 시집살이의 반대급부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남편의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이다. 규방가사의 부부는 ‘남자행세’와 ‘여자소임’을 다해야 하는 규범적 존재이기에, 사설의 상당 부분이 유교적 실천 덕목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시집살이노래에는 남편에게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화자는 오로지 남편을 향한 애정과 믿음 하나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딘다. 이처럼 부요에서 남편은 여성의 삶의 목표이자 전부이다.

남편 존재의 절대성은 의복 장만을 노래한 시집살이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뽕따다가 누에쳐서 중실세실 뽑아낼제
 세실을랑 가려내어 가장의복 장만하고
 중실을랑 골라내어 우리몸에 입어보세
 뒤터에는 목화심어 송이송이 골라팔제
 새송이는 가려내어 가장의복 장만하고
 서리맞이 마고따서 우리의소 두어입자¹³⁾

12) <시집살이요>(부녕지방)

13) <남편요>(평양지방)

누에 치고 목화 따서 의복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 남편의 의복을 장만하겠다고 노래한다. 자신의 옷은 굵은 실과 서리 맞은 목화솜으로 대충 지어 입자면서도 남편의 옷만큼은 정성을 다하려는 아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의복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다 진정성 있게 표현된 작품이다.

남편을 그 누구보다 위하는 아내의 마음이 죽음을 소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집오든 삼년만에 시어마니가 죽었다네
 시어마니 죽고나서 시아버지가 또죽었네
 집안식구 다죽어도 우리낭군 죽지마소
 올라가는 올라마귀 내려오는 날가마귀
 이놈저놈 많이잡아 우리님상에 올려가세¹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연이은 죽음을 당해 황망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남편만은 죽지 말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집 주변을 맴도는 까마귀는 집안의 액운을 감지한 듯 까마귀는 집 주변을 계속 맴돈다. 까마귀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남편 역시 죽음을 앞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데 화자는 까마귀들을 잡아 남편 상에 올리자고 노래한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염라대왕과도 맞설 분위기다.

이처럼 부요의 향유층인 평민 여성에게 남편은 죽음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을 절대적 존재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애정이다. 부요에는 조건과 요구를 전제하지 않은 부부 관계, 투박해서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부부애가 잘 드러나 있다.

14) <남편요>(장흥지방)

2.2 처첩 간의 갈등

조선 후기에 이르면 유교적 여성 모델은 계층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유순지덕과 행실의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칠거지악의 하나인 투기 역시 금기가 되었다.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다는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마저도 부덕의 소치로 간주되어, 여성을 속박하는 규제로 자리잡았다.¹⁵⁾ 투기는 한 남성을 사이에 둔 여성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되는 감정 행위이다.

규방가사와 부요에서 처첩 간의 문제를 형상화는 방식에는 계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규방가사의 경우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처첩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정처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처첩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축첩제가 보장된 만큼 처첩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했을 것임을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다고 사대부 여성이 규방가사에서 처첩 간 갈등의 실체와 자신의 심적 상태를 표면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첩은 사대부 남성이 첩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허비하고 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성의 반규범적 행태들 중 하나의 사례로 등장할 따름이다.

남자흉 하고보면 부체밧과 갓홀지라
어떤남자 불작시면 고대광실 조흔집과
문전독답 조흔전지 쥬색잡기 다판내고
일부이처 법에잇나 삼작거래 첩을두고
백연부부 배척하고 가정살이 요란하니

15) 투거(妬去)의 의의를 추역(抽釋)하면, 무릇 여자가 다 좋은 부군(夫君)을 맞아 해로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니, 혹 첩을 거느리어 정이 옹아가거나, 혹 방탕하여 외도하면 자기 신명(身命)의 둘 바가 없게 되므로 투기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지아비와 이혼하거나 출부(黜夫)하는 자유와 권리는 없고, 도리어 투기함을 출기(黜棄)의 조건으로 잡으니, 공평한 마음으로 논하건대, 세상에 이렇듯 불공평·부자연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로다.(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216쪽).

대장부에 도둑상이 이것신들 할일인가¹⁶⁾

사대부 여성은 남편의 첩 두기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가문 전체의 문제로 간주한다. 첩을 두게 되면 작계는 남편 몸을 상하게 될 것이며, 크게는 첩에게 마음을 쏟느라 부모에게 불효하기 쉽고 가산을 탕진하는 데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부의 문제를 떠나 가문의 위기다. 첩을 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일찍이 유몽인이 『어우야담』에서 “나는 밥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 옷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첩을 얻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제도적 용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첩을 두기보다는 여종, 기생 등과 외정을 통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여색을 탐해서 첩을 많이 두어 성행(性行)을 상실하고 그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부모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한다면 정성어린 말로 간곡히 만류한다. 그 만류하는 처사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에서 그런 것이요, 질투에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인다면, 남편이 깨닫지 않을 리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성품이 편협하여 시기를 부림으로써 결국 부부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해치는 일까지 한다면 이는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¹⁷⁾

결국 첩을 경계하고 남편을 단속하는 일은 투기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여자 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화법을 써서 남편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됨을 강조한다. 이처럼 규방가사는 처첩 간의 직접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남편 경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요는 처첩 간의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성이 고된 시집살이는 유일한 이유는 남편이다. 남편의 배신, 특히 첩 문제는

16) <화전가라>(임기중, 『한국가사문학 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17) 이덕무, 『사소절』, 숲, 1996, 51쪽.

아내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되며, 극단에는 죽음으로 종결된다. 여기서 죽음의 대상은 첫째는 본처요, 둘째는 첩이다. <진주낭군요>로 불리는 다음 시집살이요는 본처가 첩과 놀아나는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는 노래이다.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 삼년만에
 목매달아 죽었다네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돌 좋고 물도 좋네 빨래동이 옆에놓고
 손을걸고 빨래하니 어디선가 말발자욱소리
 터덕터덕 들려오네 옆눈으로 쓸쩍보니
 용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못본듯이 지나가네 검은빨래 검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어 집이라고 찾아가니
 사랑방이 분주하다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진주낭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나가봐라
 사랑방에 나가보니 오색가지 술에다가
 기생첩을 옆에끼고 흥얼흥얼 하는구나
 아랫방에 내려와서 아홉장의 유서쓰고
 명주수건 열자에다 목을달아 죽었다네¹⁸⁾

남편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시집살이를 감내해온 여성에게 남편의 배신은 절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래의 주인공 여성은 극한의 절망감에서 결국 극단적인 길을 택한다. 논리도 이성도 필요 없는 감정적인 선택을 할 만큼 남편의 존재감은 크다. 여기에서 3년은 기나긴 이별의 시간을, 빨래는 고된 육체노동의 대유적 표현이다. 남편의 부재는 여성에게 결핍의 상태이다. 그러한 정서적·육체적 결핍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다.

그러나 남편은 기생첩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며 외롭고 힘겨운 시집살이를 견뎠던 본처를 나 몰라라 한 채 사랑방에서 첩

18) <시집살이요>(영일지방)

을 옆에 끼고 놀아난다. 본처 여성이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의 크기는 남편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절대성과 비례한다. 결국 본처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죽음은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남편을 내조한 자신 앞에 펼쳐진 남편의 ‘첩질’이라는 부당함에 대한 항거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 노래의 여성 화자에게는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 소홀에서 나오는 뚜렷한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언급했듯이 규방가사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위상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부요에서 남편은 단지 ‘존재’ 자체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진주낭군요> 사설이 남편의 탄식으로 끝나는 사실¹⁹⁾ 또한 본처의 죽음이 남편을 빼앗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감정적 자살’임을 뒷받침한다. 극단적인 자살 행위의 촉발 기제는 절대적 존재인 남편을 빼앗긴 상실감과 바람을 피운 남편을 향한 원망심이다. 다시 말해 한(恨)의 정서이다. 민중들의 의식과 정서가 투영된 부요에서 여성의 맺힌 한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적체된 정서이다.²⁰⁾ 죽은 아내의 해원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책임이다. <진주낭군요>의 결말에서 남편의 후회어린 탄식으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은 아내임을 고백한다. 이는 민속학적으로 볼 때 해원풀이에 다름아니다. 죽어서까지 남편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습에는 부요 향유층 여성들의 현실적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부요에서 남편은 여성에게 절대적 존재이며, 첩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방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진주낭군

19) 이말들은 진주낭군 버선발로 뛰어나와 / 사랑사랑 내사랑아 어이그리 죽었는고 / 기생첩은 사홀이고 본내택은 백년인데 / 어이그리 죽었는고

20) 민속에서는 한을 품고 죽은 여성의 영혼은 인간세계에서 방황하며 산 사람이나 후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해원굿을 행하는데, 지역에 따라 ‘망자풀이’, ‘오구해원’, ‘초망자굿’ 등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죽은 혼령의 해원을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가 처첩 간 갈등을 본처의 자살 및 남편과의 사후 화해를 통해 해소한다면, 대표적인 첩 소재 부요인 <큰어머니> 노래에는 직접 첩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본처의 적극성이 드러난다.

첩의집에 간다하니 활살같이 굽은질로
 수수꺀어 이리털고 첩의집에 간다하니
 큰어머니 오신다고 꽃방석을 내드리며
 큰어머니 오신다고 은방석을 내드리며
 어안저소 저안소저 나무겉은 저년뵈라
 제비겉이 절을한다 큰어머니 오신다고
 담배한대 잡고서 은대녹대 내어놓고
 에라요년 고만도라 은대녹대 나도있다
 이맛살이 저만하만 술전인들 비민할까
 입모섬이 저만하만 뱀모섬이 비민할까
 큰어머니 오신다고 찢덕찢덕 떡을할까
 고실고실 밥을할까 우굴우굴 죽을할까
 에라요년 고만도라 큰어머니 큰어머니
 칼겉이도 묶은마음 물겉이도 풀고가소²¹⁾

본처는 수숫대를 들고 첩의 집에 담판을 지으러 찾아간다. 수숫대를 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혼쥘을 내겠노라 버르고 찾아갔건만 첩의 온갖 아양에 칼같이 서슬 퍼런 본처의 마음은 그만 풀려버린다. 고운 방석을 내오고 담배를 권하며 밥과 떡을 하는 등 정성스럽게 본처를 맞는 첩에게 본처는 같은 여자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만 것이다.²²⁾ 위협과 폭력 등의 문제 해결방법은 민요에서 찾기 어렵다. 본처 역시 수숫

21) <첩요>(임동권, 앞의 책).

22) <큰어머니> 노래에 등장하는 첩은 실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는 달리 여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극도의 분노감으로 찾아온 큰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한다. 이러한 첩의 형상은 첩을 바라보는 본처의 이중적 시각을 반영한다. 즉, 첩을 열위와 본처의 우위를 인정하는 처첩 간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첩을 남성적 욕망에 포섭된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포착되기 때문이다.(이정아, 「첩 소재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식 -<큰어머니>노래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5~229쪽).

대를 들고 쫓아갔으나 일차적으로 이해과 화해를 통해 첩과의 갈등이 해소된다.

<큰어머니> 노래에는 본처의 행동과 심적 변화가 ‘첩을 찾아감(분노)→ 첩을 보고 마음이 변함(연민)’→집으로 돌아옴(탄식)‘으로 나타난다. 귀가 후 행동에는 각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본처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실문제의 대응 양상으로서 본처의 자살은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첩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에는 베틀놓고 구름에는 잉어걸어
 째각째각 짜노라니 등넘어서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여 두손으로 펼쳐보니
 시앗죽은 편지러라 괴귀반찬 쓰더니만
 소곰반찬 달고달다²³⁾

첩의 환대에 마음을 풀고 집으로 돌아왔을망정 처첩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첩이 있는 한 불화의 씨앗은 남아있는 셈이다.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첩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²⁴⁾ 이 완전한 문제해결은 하늘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앗죽은편지>는 첩이 죽은 부고를 받고 시원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첩의 생존 시에는 맛있는 고기반찬도 쓰디 썼는데 첩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니 짜디짠 소곰반찬조차 꿀맛같이 느껴진다는 해학적이면서도 공감을 자아낸다.

남편과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고 자신의 삶을 고달프게 만든 첩을 직접 응징하지 않고 하늘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관용,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중들의 정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23) <시앗죽은편지>(군위 지방)

24) 첩 스스로 남편을 떠난다거나 남편이 첩을 버리고 본처에게 돌아와 백년해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각편은 찾기 어렵다. 결국 첩은 본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적 대상으로 남는다.

수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정서는 현세의 악업이나 악연이 내생까지 이어진다는 윤회론적 인식과 믿음에서 비롯한다.

2.3 가사노동과 치산

전통시대 여성들에게 혼인은 친정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 시족 구성원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가사노동의 고단함 외에도 남편의 내조, 출산과 육아 등 아내·며느리·어머니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 활동이다. 현재도 여성의 결혼 행위를 일컬어 ‘시집간다’, 결혼 생활을 ‘시집살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여성이 시가에 들어가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정신적·물질적·생활고를 시집살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시집살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분계층, 결혼 생활의 기간, 경제 수준 등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규방가사와 부요의 젠더적 동질성과 계층적 차별성에 주목하여 작품에 나타난 노동과 치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은 침선방적, 공궤, 봉제사, 접빈객, 육아 같은 가내노동과 목화농사, 논밭농사 같은 가외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대부 남성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자신에게 책임 지워진 일들을 엄연한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²⁵⁾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신변탄식으로 이어졌다.²⁶⁾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25)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혼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하는 비주체적인 노동이었으며, 경제적인 가치도 평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의 노동이 화폐로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주변화되고 가치절하되었던 여성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조자현,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2, 4쪽). 이로 보아 조선후기에 이르면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6) 권영철·김영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제상」, 『여성문제연구』

는 이러한 배경에서 창작된 작품 유형이며, 화전가류 역시 과중한 가사노동의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화전놀이를 즐기는 기쁨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규방가사를 창작·향유·전승한 주 문학담당층은 사대부 여성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가외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내노동 역시 봉제사, 접빈객 등 향촌사족사회에서 가문의 유지와 성달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부조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사대부 여성들은 어릴적부터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한정정한 부덕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내면화해 왔다. 그러므로 규방가사에 나타난 노동의 제상과 그에 반영된 사대부 여성들의 현실인식을 이면을 들여다 보면, 여자소임을 다할 수 없는데서 오는 규범적 자아의 심리적 불안감을 더 크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적 여건이 사대부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면과 격식 등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이고 고통이다.

하인을 급히불너 이웃집이 보닛쓰니
 도라와 하난말이 전의꾼쌀 아니주고
 염치업이 쏘왔나냐 두말말고 밧비가라
 그렁저렁 하노라니 썩가님의 오시로다
 자기함농 여러낫코 약간전양 디여너여
 쌀팔고 반찬사니 기식이 장식이라²⁷⁾

<복선화음가>의 앞부분에는 갓 시집은 새며느리가 시부모를 봉양하고자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시집와 처음 시부모께 올리는 음식 공궤는 새로 들인 며느리의 음식 솜씨뿐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이다. 이른바 친정에서 배우고 익힌 선을 온갖 솜씨와 예의범절, 교양 등을 ‘선보이는’ 자리인 것이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19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84쪽.

27) <복선화음가>

그런데 새며느리를 맞은 시가는 부엌에 쌀 한 톨, 간장 한 종지도 없이 궁핍한 살림이다. 화자는 서둘러 이웃집에서 곡식을 빌리려 하지만, 면박만 당하고 무안하여 돌아온다.²⁸⁾ 식사 때가 점점 다가오자, 화자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결국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팔아 음식 거리를 준비한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수용한다. 가사노동을 사대부 여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 여공으로 간주하며, 아무리 어처구니없고 가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힘겨움이나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없다.

한편, 봉제사와 접빈객을 중시 여긴 것은 가문의 성달을 위해 여성이 해야 하는 대사회적 가사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조는 특히 가문의 의미가 중요한 사회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문의 존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봉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가장 핵심적인 의례인 제사는 명분상 남성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여성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봉제사 역할은 당시로서는 일상적인 가정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²⁹⁾

접빈객은 가정 내의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이 공간적으로 미분화되어 있던 조선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적 공간 내의 공적인 회합’에 대한 접대였다. 당시에는 각 개인의 집 외에는 달리 특별히 회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따라서 각 가정 내의 이른바 ‘사랑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합의 장소였고 거기에서 많은 공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 사랑방에서 이루어지는 접빈객은 양반사회의 대표적인 공조 기능이었다. 평민들이 노동할 때의 품앗이처럼, 양반이라는 신분적 특권을 같은 양반 내에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조 수단이 그것이다. 가령 아직 관직에

28) 이는 신분적 교양의 유지와 생계적 기반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만 하는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 역할 수행이 얼마나 곤고하고 지대한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319~320쪽).

2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96쪽.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게 접빈객은 정보와 또 약간의 풍요를 접해볼 수 있는 통로였다.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이 관직에 나아가게 된다면 또한 접빈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양반사회에서 있어서 접빈객은 필수불가결한 활성화의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누되중가 중부되여 봉지스도 조심이요
 통계중문 호가스에 접빈객도 어렵더라
 모수나이 습비나이 명주짜기 무명짜기
 파람이어 틈을본이 작업방직 어렵드라
 밥잘미저 술잘비저 주스시에 어렵더라
 혼담을 맞게하여 반간보기 어렵더라
 세목중목 놀라니여 무직다듬 어렵드라
 즈주비단 잉물치마 염식하기 어렵드라
 춘복지여 츄복지여 빠래하기 어렵드라
 동지장야 흐지일에 흐고만흔 저세월에
 첩첩히 싸인일흘 흐고흔들 다할손가³⁰⁾

조선조 남성은 과거시험이나 관직에 몰두하여 집안의 경제 관리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은 가정 경제를 사소한 집안 일로 여겨 무심한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길 정도였다. 토지와 노비는 조선조 각 가정의 재산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집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가정 경제 전체를 주체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이르면 근면과 절약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치산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슈족이 다성하고 이목구비 온전하니
 닻힘써 닻먹으면 그무엇을 부러하리

30) <여자가라>

비단치마 입던허리 횡자치마 돌너입고
 운혜당혜 신든발너 석식집신 줄여신고
 단장안희 무근처마 갈고미고 기간하여
 외가지를 굴기길너 성시의 팔아오고
 썩을짜 누이쳐서 오식당스 고은실을
 유향갓튼 큰비틀이 필필이 짜닐격이
 쌍원앙 공작이며 기린봉황 범나비라
 문치도 찰난하고 슈범도 기이하다
 오회월여 고은실은 슈눛기로 다진하고
 호상이 돈천냥은 비단갑시 부족하다
 식이식이 틈을타서 칠십노인 슈의짓고
 첩상복근 고은의복 녹의홍상 처녀치장
 어린아희 식웃이며 디신입난 조복이라
 저녁의 켜는불노 식벽조반 얼런짓너
 알알이 혜여먹고 준준이 모아보니
 양이모여 관이되고 관이모여 백이로다³¹⁾

여기에는 치산의 방법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비단치마를 행주치마로 갈아입고, 운혜·당혜를 석새짚신으로 갈아신는 검약의 실천이다. 둘째, 오이·가지 등 밭농사를 지어 시기를 보아 판매하는 일이다. 셋째, 길쌈이다. 특히 길쌈은 누에치기, 견사 채취, 베 짜기, 수농기에 이르기까지 완성품 의복 제작의 전 과정을 일괄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³²⁾ 이는 조선전기에 대체로 절약과 검소가 크게 강조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치산 행위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을 보여준다.³³⁾ ‘양이 모여 관이 되고 관이 모여 백’은 치산의 결과에 대한 단적 표현이다. 여기에는 자기 성취에 대한 만족감과 우월감이 내포

31) <복선화음가>

32)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한 사람의 베 짜는 여인의 농부 세 사람의 수입보다 낫다”고 쓰고 있다. 이덕무도 『사소절』에서 “가세가 빈곤하면 베 짜기와 누에치기는 물론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그리고, 대추·밤·감·굴 등을 간수하였다가 때를 기다려 팔아서 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라고 권장하였다.

33) 하현강,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23~24쪽.

되어 있다. 이처럼 과정의 고단함보다 결과의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가문 전체의 명운이 개별 구성원의 삶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요는 직접적인 생활고,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음식 공례, 물 길기, 방아 찧기, 자리 짜기, 삼베 짜기 등 육체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평민여성에게 가외활동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음식 공례, 빨래 같은 가사활동은 기본이며, 밭일, 들일 같은 고된 노동이 당연한 일과처럼 생각되었다. 따라서 부요에는 육체적 노동의 힘겨움을 토로한 작품이 많다.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때고 열두방에 자리걸고³⁴⁾

경산지방 시집살이노래에는 둥근 식기에 밥 담기의 어려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 길고 방아 찧는 힘겨움, 많은 가족들의 의식주를 직접 다 챙겨야 하는 고단함이 잘 나타나 있다.

한골매고 두골매고 불거치라 더운날에
미거치 지승밭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분을 거듭매도 다른 점슴 다나온테
이내점슴 안나오네 집에라고 들어보니
시아바이 마구친다 아버님요 마구치오
오냐나는 마구친다 밭이라고 밭골땀노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을 거듭땀오
에라요년 물렀거라 고가라사 일이라고
시를 찾고 때를 찾아 점슴참을 찾아왔나³⁵⁾

시집가던 샘일만에 일가심을 내노랑께

34) <시집살이요>(경산지방)

35) 『구비문학대계』 7-4, <중이 된 떠느리>

입가심은 아니주고 참깨닷말 들깨닷말
 두닷말을 내어줍서 볍으라고 내어주네
 한술볶아 두술볶아 삼시술을 볍고나니
 벌어진다 벌어진다 양가매가 벌어진다
 양동우도 벌어진구나³⁶⁾

오랜 시간 밭고랑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해야 하는 김매기는 주로 여자의 일로 간주되었다. 한번에 큰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여름철의 밭은 사흘만 지나도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러므로 밭의 김매기는 며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중이된며느리> 노래의 화자는 불볕더위 속에서 몇 골의 풀을 땀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내오건만 화자의 점심만 소식이 없다. 화자의 시선은 자꾸만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옹기종기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향할 것이다. 화자는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더위와 갈증, 피로, 허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양동가마>는 갓 시집온 여성이 많은 양의 참깨와 들깨를 볍느라고 양동가마를 깨뜨리자 시족 식구들이 양동가마 값을 물어달라고 하는 노래이다. <중이된며느리>가 여승 출가와 죽음이라는 소극적 저항으로 고된 시집살이를 극복하려 하는 것에 비해, <양동가마>의 화자는 시댁 식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관가에 소송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부요에는 단순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대한 괴로움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부요에 나타난 평민 여성의 노동은 규방가사처럼 성공한 규범적 자아의 자득감에서 나오는 자기서사가 아니요, 고된 시집살이의 한 측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다. 또한, 가난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나 의지의 천명 보이지 않고 가난 자체를 숙명적으로

36) <양동가마>(김철환, 「민요의 현실 비판 양상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04, 20~21쪽 재인용).

받아들인다. 이처럼 가난한 상황 묘사는 거의 유사하지만 가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규방가사와 전혀 다르다. 이런 육체고로 인한 잠의 부족을 읊은 노래가 많은 것도 부요의 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³⁷⁾

3. 결론

조선조 여성들만큼 사회적·정치적 제조건에 밀착되어 있던 계층도 드물다. 현실적 소외 계층인 여성에게 정확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현실 대응방식을 선택하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필연적으로 이들 여성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지배층인 남성에게 비해 현실의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이들은 여성에게 요구된 도덕과 규범을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그 현실적 조건 안에서 자아를 실현해간 사회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본 연구는 조선조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두 문학 갈래인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현실대응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조 여성들의 보편적 의식과 계층적 특수성을 밝히고자 했다. 규방가사와 부요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하에서 억압당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문학적 형상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분계층에 기인한 현실적 격차가 성적 동질감 이상으로 그들이 각각 향유한 문학 양식에 드러나 있었다.

조선조 여성에게 혼인은 시가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인데,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패러다임에 의해 그 새로운 세계는 ‘시집살이’라는 불행의 씨앗을 틔운다. 본고에서 살펴본 혼인을 통해 조선조 여성이

37) 잠아잠아 오지마라 요내눈에 오는잠은 / 말도많고 흥도많다 잠오는눈을 쭈잠아빠여 / 탕주나무에다 걸어놓고 들며보고 날며보니 / 탕주나무도 꺾박꺾박<잠노래> (거창지방), 잠아잠아 오지마라 시어마니 눈에난다 / 시어마니 눈에나면 임의눈에 절로난다<잠노래>(여수지방)

맞닥뜨린 현실적 조건과 이에 대응한 양상은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첫째,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남편과의 관계 양상과 살펴보았다. 여성은 새롭게 맺는 모든 시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혼인을 통해 배우자인 남편에서 파생한 것이다. 규방가사의 향유층인 사대부 여성에게 혼인은 남편과의 애정 관계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대 가문으로 성사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집살이나 시족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남편만을 서술의 구체적인 모티프로 다루는 경우는 드문 데 비해 부요의 경우 남편은 아내인 평민 여성의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 평민 여성은 시집살이의 보상으로 남편의 애정을 갈구하는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규방가사와 부요 간에 처첩 간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처첩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정치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까닭에 규방가사에서 처첩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남편이 첩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허비하고 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할 따름이다. 반면 평민 여성에게 첩의 등장은 남편의 배신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부요에서 첩 문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집살이의 여러 양상 가운데 여성의 노동에 주목하여 규방가사와 부요를 살폈다. 그 결과 유교 질서가 내면화된 사대부 여성일수록 빈곤으로 인해 구고봉양, 봉제사, 접빈객 등 여자소임을 다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이 강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규범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고통이다. 규방가사가 근면과 절약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치산을 이루는 과정을 강조한 데 비해 부요는 생존과 직결된 직접적인 생활고, 가난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부요에는 가난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의 높은 벽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규방가사와 부요에는 조선조 여성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낸

다양한 방식들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형상화의 밑바탕에는 현실과 균형을 이루려는 여성의식이 자리해 있다. 현실과 괴리된 여성의 삶이 아닌, 현실과 밀착된 여성 삶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규방가사와 부요는 여성 삶의 다양한 실상이 진솔하게 표출된 생활문학이요, 여성이 살아낸 삶의 체험을 오롯이 담고 있는 체험문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권영철, 『규방가사 각론』, 형설출판사, 1986.
- 김석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박이정, 1996.
-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 이덕무, 『사소절』, 솔, 1996.
- 이정아, 『시집살이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혜안, 2010.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 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74.
-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 하현강,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 대응양상과 그 의미: 시집살이 애정 갈등 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97~130쪽.
- 권영철·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제상」, 『여성문제연구』 19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69~184쪽.

- 김철환, 「민요의 현실 비판 양상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10, 67~92쪽.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쪽.
- 이정아, 「첩 소재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식 -〈큰어머니〉노래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195~229쪽
- 이현수, 「규방가사와 부요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147~173쪽.
- 조자현,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2.
- 허왕욱, 「규방가사와 조선후기 여성의 자아정체성 찾기」, 『한국어문교육』 12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 95~122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Joseon Women's Consciousness of reality between Gyubanggasa and Buyo

Son, Aeng-hwa

This story is aimed at revealing universal consciousness of Joseon era's women and hierarchical distinctiveness by comparing the aspect of reality response that is expressed in Gyubanggasa and Buyo, or two main branches that represent woman literature.

Gyubanggasa and Buyo show the similar recognition that women suppressed and isolated under patriarchal social system are literary form. But on one hand the class difference between nobleman and the common people was the social standard to decide the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because Joseon era regarded the order of social status as important.

Woman's marriage is the starting point going into the new world. There are a few characteristics about the realistic condition and the aspect of response that Joseon era's women confront through marriage. Woman's native home is the space that is difficult to go back again and object of longing and nostalgia. On the other hand, husband's home is the object of fear and anxiety as the space that they should live through. The position of woman's parents is replaced by husband's parents and siblings by husband's siblings. The relationship that woman makes with

all husband's family members is derived from the spouse, husband through marriage. Therefore the husband is the precondition in understanding the woman's reality.

In Gyubanggasa the individual and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husband is not considered. The woman that is accustomed to family consciousness rarely deals with husband as a concrete motif excluding husband's family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husband in Buyo is the only support of woman. The woman commoner craves for husband's affection as the compensation of woman's married lif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of representing the problems between wife and mistress in Gyubanggasa and Buyo. In the case of Gyubanggasa, the conflict between wife and mistress did not come to the surface because wife and mistress was distinguished strictly and formal wife's position is guaranteed by law. By comparison, the aspect of conflict between wife and mistress is exposed remarkably. The appearance of mistress to woman commoner is the husband's betrayal and the reason to make her lose the purpose and meaning of life ultimately.

Also as noble-woman internalizes Confucius order, she deals with the mental shock more significantly coming from the fact that she can't do her duty-supporting family, performing ancestral ceremonies and visitors because of poverty. It's the mental pain coming from between prescriptive self and realistic self. Also the description about the process to overcome poverty by diligence and saving in Gyubanggasa is expressed more specifically. Buyo deals with the direct financial difficulty and poverty mainly. There are many works that reveal the hardship of physical labor. But they don't try to overcome poor situation and just accept poverty itself as fate.

The various ways that Joseon era' women recognize reality and live through are represented in Gyubanggasa and Buyo. Therefore Gyubanggasa and Buyo are the life literature that various reality of woman is expressed and experience literature to contain the experience of life that women live through.

Key words : Ggyubanggasa, Buyo, reality recognition, Sijibsal-i, normative self, housework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

